

PARK KI WON

박기원 (b.1964)

박기원의 작품은 반드시 혼자서 보러 간다. 다른 이와 함께 갔더라도 한 번은 시간을 내서 다시 보러 가고 작품 곁에서 혼자 있는 시간을 갖기를 원한다. 옆 사람의 기분이나 반응이 신경 쓰이는 순간 작품 감상은 글렀다고 보고, 다시 전시장을 찾는다. 특히 설치 작품일 경우 나의 전체, 감각과 생각 모두가 그의 작품에 감응하기를 바란다. 박기원 작품의 그러한 미묘함은 어떻게 만들어내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 설치미술(installation art) 작품들은 대개 컨셉추얼한 요소를 가지고 있고, 미술 담론 내에서 관람자를 시험에 들게 한다는 것이 나의 편견이다. 그래서 이런 작품들 앞에서는 본능적으로 경계(警戒)에 가까운 태도를 가지게 되고, 지적 호기심이 발동하는 정도의 경우에 텍스트 쪽으로 향한다. 하지만 박기원의 작품을 대할 때는 쉽게 무장해제 되어 전시장 안에서 흐르는 시간을 기꺼이 즐기게 된다. 그의 작품 속에 숨겨져 있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색과 형태들이 나의 시간 속에서 흘러간다. 신체를 감싸는 압도적인 규모의 설치 작품을 할 때도 박기원은 관객을 깜짝 놀라게 하려는 의도보다는 모종의 배려심이 느껴질 정도인데, 그런 감상에 대해서는 아직 작가와 이야기 나눈 바 없고 나도 여전히 생각 중이다. 작가와 이야기를 나누어도 딱 부러지게 시원한 대답을 들려줄 것 같지는 않다.

대형 설치가 주 작업인 작가는 작업실에서 무엇을 하는가. 일시적으로 전시장에서 구현되었다가 사라지는 운명의 설치 작품을 위해 작업실에서 재료 실험을 할 수는 있지만 계속 실험만 하고 있을 수는 없는 일이다. 그리고 실제 공간이 주어져야 구체적인 설치의 고안을 할 수 있으므로, 평상시의 작업실에서는 무엇을 하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박기원은 그림을 그린다. 그의 설치작품이 보여주는 컬러들은 미묘하면서도 은유적이고 강렬한데, 평면 작품도 그러한 특성이 묻어난다. 한 사람의 작가가 가지고 있는 감각은 재료가 달라지더라도 비슷한 지향점으로 향해 가기 때문이라.

이번 전시에는 그의 캔버스 작품들이 많이 출품되었다. 그는 캔버스에 오일 스틱 등으로 무수한 선을 그어 결과적으로 기하학적 추상이라고 가름될 만한, 멀리서 보면 풍경의 언저리쯤에 해당되는 그림을 그렸다. 풍경이 연상된다고 했지만 그의 작품 제목은 그러한 해석으로부터 중립지대로 달아나고 싶어 하는 것 같다. 대개 '넓이', 혹은 '넓이'에 추가적으로 연변을 붙이는 방식으로 제명이 되었기 때문이다. 동일한 전시 내에서도, PVC 비닐로 만든 커다란 볼링핀 모양을 가로로 누인 작품에 <럭키>라는 인간적인 제목을 붙인 것과는 정반대로, 대개의 평면 작품에 '넓이'라는 추상적인 제목을 부여했다. 세상에 존재하는 것 중에 넓이를 가지지 않은 것이라 실행되지 못한 '잠재적 형태'에 불과하므로, 작가의 시간을 통해 세상에 나온 것은 모두 '넓이'이다. 이는 사선을 무수히 그은 평면에 <수평>이라는 제목을 붙인 것보다 더 모호하고 의혹을 불러일으킨다.

'수평'은 인간 중심의 개념이다. 물론 수평을 만드는 것은 지구의 중력이고, 중력장 위에 인간이 서 있기에 수평과 수직을 구분한다. 박기원의 그림 속에서 수평과 수직과 사선을 바라보면서, 20세기 초 화가 테오 반 도스부르크(Theo van Doesburg)의 작품이 살짝 스쳐 지나갔다. 반 도스부르크의 작품은 몬드리안과 거의 흡사해 보이지만, 두 사람은 전혀 다른 기질의 사람이었고, 수직과 수평 이외에 사선을 쓰는 문제로 논쟁한 후 결별하였다. 두 사람 모두 신지학(Theosophy)의 영향을 받았으나, 몬드리안은 세계의 기본 요소로 수직과 수평만을 인정했고, 사선을 도입한 반 도스부르크의 작품은 인정할 수 없었던 것이다. 사실 몬드리안의 작품을 45° 돌리면 반 도스부르크의 작품과 거의 동일해 보였겠지만,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사선'이 그림 속에 들어오는 것을 몬드리안은 결코 인정할 수 없었던 것이다. 사선을 적극적으로 사용한 반 도스부르크는 그림 안의 것만으로 그림을 그리지 않았다. 반 도스부르크는 인간이 만드는 공간에 대한 상상력으로 충만했던 화가였고, 실내건축가였고, 미술평론가이기도 했다. 이른 죽음이 그의 미래를 앗아가지 않았더라면, 구체적인 공간으로 뻗어나가고자 했던 그의 의도를 볼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세계에 대한 조형적 정의를 두고 이념적으로 다툴 수 있었던 지난 시대는 그 자체로 얼마나 사랑스러운가. 박기원의 사선은 반 도스부르크가 했던 것처럼 세계에 대한 비밀에 대해 말해주고자 하는 것일까. 플랜C에 한 줄로 배치되어 있는 그의 <넓이>들, 넓이 87번, 넓이 90번, 넓이 91번, 넓이 92번, 넓이 93번, 넓이 94번을 보면 비로소 무수한 사선들을 통해 깊이감이 전해져 온다. 이 연작은 녹음이 짙어 그들이 푸르려 보이는 화창한 여름날의 풍경 같았다.

글: 이윤희(미술평론가) [이런 날씨 어때? 4인 그룹전(김지원, 박기원, 정승운, 채우승) 도록의 글에서 박기원 부분 발췌]



WIDTH 96, 33.3x24.2cm, Oil stick on canvas, 2023



WIDTH 99, 33.3x24.2cm, Oil stick on canvas, 2023

박기원 (1964-)

충북대학교 사범대학 미술교육과 졸업(서양화 전공)

주요 개인전

- 2022 대화, 서울식물원, 서울
- 2022 왁스 퍼니처, 차[茶] 스튜디오, 인천
- 2019 연속, 313 아트 프로젝트, 서울
- 2016 숨겨진 표면, 갤러리아 콘티누아, 베이징
- 2016 성장공간, 313 아트 프로젝트, 서울
- 2010 올해의 작가-누가 미술관을 두려워하라,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 2009 부유, 미키웁킴 컨템포러리 아트, 취리히
- 2008 마찰, 공간화랑, 서울
- 2006 가벼운 무게, 레이나 소피아 국립미술관, 마드리드
- 2006 파멸, 아르코미술관, 서울
- 2004 보온, 시공갤러리, 대구
- 2002 수평, 가람화랑, 서울
- 1997 센스, 컨템포러리 포토그래피 센터, 멜버른
- 움직임, 가인화랑, 서울

주요 그룹전

- 2024 이런 날씨 어때? 에브리아트, 차[茶] 스튜디오, 플랜씨, 서울, 인천, 전주
- 2024 모든 섬은 산이다, Palazzo Malta- Ordine di Malta, Venice
- 2024 시공時空 시나리오,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 2023 어디로 주름이 지나가는가, 아르코미술관, 서울
- 2023 환상의 멀티버스, 더 소소, 서울
- 2023 자강두천, Gallery R, 서울
- 2023 길이와 넓이와 두께에 관한 시간, 운중화랑, 분당
- 2022 에이피 맵 리뷰, 아모레퍼시픽미술관, 서울
- 2022 검은, 흰: 행위와의 대화, Art Project CO, 서울
- 2022 R22, Gallery R, 서울
- 2021 박기원이 이인현을 만났을 때, 차[茶] 스튜디오, 인천
- 2021 빛으로 그리는 신세계, 청주시립미술관, 청주
- 2020 신나는 빗갈마당,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 2020 수평의 축,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 2019 레디컬 아트, 청주시립 오창전시관, 청주
- 2019 생활, 제주도립미술관, 제주
- 2018 그리고 아무말도 하지않았다, OCI미술관, 서울
- 2018 한강예술공원 프로젝트, 이촌한강공원, 서울
- 2017 율동: 규칙과 운동감, 서울시립북서울미술관, 서울
- 2016 달은, 차고, 이지러진다,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 2016 용산 Make Link, 용산가족공원, 서울
- 2015 Spheres8, Galleria Continua, Les Moulins, 프랑스
- 2015 Esprit Dior, DDP, 서울
- 2015 열은 공기속으로, 금호미술관
- 2014 Spheres7, Galleria Continua, Les Moulins, 프랑스

- 2014 Empty Fullness, SPSI Museum, 상하이
- 2014 Beyond the Border, East Side Gallery Outdoor Space, 베를린
- 2014 Love Minus Zero, 갤러리 소소, 파주
- 2013 Reverscape, 아모레퍼시픽미술관 뷰티캠퍼스, 오산
- 2013 한국미술 대항해 시대를 열다, 부산시립미술관, 부산
- 2012 순간의 꽃, OCI 미술관
- 2012 한국의 단색화,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 2011 올해의 작가 23인의 이야기,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 2011 Welcome to my Would, 아산정책연구원
- 2011 type: Wall, 소마미술관
- 2009 신호탄,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 2009 대학로 100번지, 아르코미술관
- 2008 Contextual Listening, 몽인아트센터
- 2008 그림의 대면, 소마미술관
- 2007 한국미술-여백의 발견, 리움 삼성미술관
- 2006 잘긋기, 소마미술관
- 2005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베네치아
- 2004 구름, 마로니에 미술관
- 2003 75cm, 사루비아다방
- 2000 디자인 혹은 예술, 디자인미술관
- 한일현대미술의 단면전, 광주비엔날레 특별전, 광주

수상

- 2010 국립현대미술관 올해의 작가상
- 1990 제13회 중앙미술대전 대상

주요 소장처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시립미술관, 아모레 퍼시픽 미술관, 아르코 미술관, 루이비통 파운데이션, 파리, 청주시립미술관, 대구미술관